

5월5일

심채린

본문: 누가복음 24장 13~35절

제목: 마음 뜨거워지는 이야기

대지: 엠마오의 여정 / 예수님의 임재

한 문장: 마음 뜨거워지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여정을 누리는 삶이 되자.

참고: 누가복음, 삶으로 읽다. /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누가와 함께하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추종할 때 그들은 더욱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 믿었던 나사렛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의 충격과 슬픔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꿈과 예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 하며 가는 엠마오의 10km 여정은 실리와 걱정과 의심, 상실과 죽음과 절망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없고 처량히 내려가는 제자들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조용히 우리의 곁에서 동행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참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 나가며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께서 큰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가 죽음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소망은 사라졌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경에서 예고 되었다는 것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주장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자신들의 집에 머물고 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낯설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례적인 점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손님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초대된 손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그제서야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생각해보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처음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은 그분이 길에서 말씀을 풀려주실 때였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5월12일

심채린

본문: 레위기 10장 1~7절

제목: 거룩히 살아갈 힘

대지: 죄의 심판 / 지켜야 할 마음

한 문장: 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참고: 거룩;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엑스포지멘터리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분향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7일동안의 위임식에 이어 8일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를 드리는 날에 바로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장자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은 자들로 성소에서 부향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둘이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향로에 담은 다음에 분향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한 것입니다.

불이면 같은 불이지 다른 불이 어디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는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사용할 것을 강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핀 불은 바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이 아닌 세속적인 불로 분향을 하려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같은 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남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뜻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과 뜻을 택하였다가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의 피가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죽이십니까? 하는 질문이 들지만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양보할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오늘 죄를 범한 나답과 아비후를 죽으신 하나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으면 더욱 칼 같이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고집이 저희들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시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5월19일

심채린

본문: 레위기 16장 1~10절

제목: 허락하신 리셋버튼

대지: 의식의 준비 / 속죄제물

한 문장: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 거룩;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엑스포지멘터리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16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날은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의식을 통하여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와 회막 그리고 백성 전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속죄일의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온 백성이 안식하고 금식하며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16장은 10장에서 나타나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함으로 합당한 준비와 조심성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적절한 준비와 의식을 행하지 않고 속죄일을 행하는 의식을 수행하면 그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되었지만 일년에 한 번 적절한 의식을 행한 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도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몸을 물로 씻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입어왔던 예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둔 염소 두 마리를 끌어들여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제물로 바칠 염소와 광야로 내보낼 암소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염소는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염소는 광야로 보내어 질 것입니다. 광야로 놓을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을 거쳐 신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 견결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속죄일 때 뿐이지만 신약에서는 완전한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드리짐으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즉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자리까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모든 제사들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년 드리지던 속죄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의 필요를 없애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19일

심채린

본문: 레위기 24장 10-16절

제목: 말이 칼이 될 때

대지: 신성모독 / 거룩한 존재

한 문장: 거룩히 살아갈 힘은 말에 있다.

참고: 거룩;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엑스포지멘터리

모독이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도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는 신성모독이 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름이 밝혀지지않은 자가 이스라엘인과 진에서 다투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고 또 그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 지파 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제공을 함으로 혼혈인으로서 정체성이 이런 인과응보의 적용 범위가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을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온 회중이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현대적인 시점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과한 것으로 비추어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은 십계명의 제 3계명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 결과도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죄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히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 늘 말과 행동을 말씀으로 살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